

1월의 돈가는 2,900~3,000원/kg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경제회복의 기치 아래 다같이 무던히도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양돈인의 입장에서 서는 한결음 뒤에 서서 자신의 사업구조를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반면, 육가공인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의 악몽과 같은 다이옥신의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곤두박질쳐 그야말로 최악이 될 수 밖에 없어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또한 한쪽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준 한 해가 되었던 것 같다. 다시말해서 생돈품질의 보증 없이는 육가공이 살아갈 수 없으며, 고돈가는 돈육원가의 상승과 직결되어 돈육수입의 폭증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돈육공급의 과잉 및 수입원가의 경쟁력에 밀려 양돈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됨을 암시한다.

따라서 돈육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그리고 돈가에 미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돈가추이를 개략적이거나 살펴 봄으로써 사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는 뜻

으로 사건을 개진해 본다.

1. 돈육의 공급측면

돈가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두수의 증감, 수입돈육 물량의 증가, 특수부위를 중심으로한 국내 돈육소비 및 대일수출 등 돈육 수급상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단기적인 돈가의 예측은 도매시장으로 공급되는 출하두수의 변화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단기 돈가전망이 가능한 자돈 및 육성돈 사료생산량을 살펴보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월보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99. 11월에서 2000년 2월까지 출하 예정두수의 증가를 예상케 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의 감소 또는 상승을 보여 돈가는 99. 11월 수준 유지후 2000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9월 사육두수중 2000년 1/4분기에 출하가능한 0~4개월령의 사육두수는 지난 6월보다는 6.4%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변화가 없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기 돈가전망의 한 방법인 모돈지수법은 도매시장으로 공급되는 돼지출하량에 따라 돈가등락의 패턴을 보인다는 점과 돼지

〈표1〉 육성돈·자돈 사료생산량

(단위 : 톤)

	'99. 7월	8월	9월	10월
1998년	304,756	308,461	350,806	363,578
1999년	303,574	310,407	336,819	368,532
전월비	3.8%	2.3%	8.5%	9.4%
전년비	-0.4%	0.6%	-4.0%	1.4%
출하예상월	'99. 11월	12월	2000.1월	2월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국내 돈육 대비 저렴한 수입돈육으로 눈을 돌려 돈가상승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대일 돈육수출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육가공업체의 불가피성으로

〈표2〉 모돈지수에 의한 돈가전망

(단위 : 톤, ₩/kg)

	'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모돈사료생산량 (모돈지수)	85,396 (108)	84,453 (109)	91,615 (102)	89,050 (104)	84,163 (110)	81,727 (112)	81,415 (113)	78,077 (116)
적용월 출하시기	'99. 11월	12월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모돈지수는 '98. 1월 모돈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출하량은 10개월 전의 모돈사료 생산실적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모돈지수에 의한 장기 돈가전망은 〈표2〉와 같다.

지난 3월의 모돈사료생산량은 전월비 8.5%가 증가하여 자돈입식의 증가로 향후 2000년 1월의 예상 출하두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 돈가 하락을 예상케 하며, 이후 사료생산량은 감소되고 감소폭은 점점 커져 2000년 설날 이후부터 돈가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예년의 돈가추이와 마찬가지로 6월까지 고돈가 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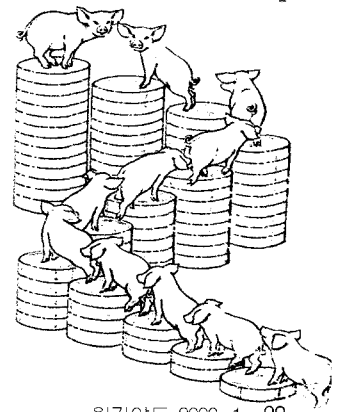
2 돈육의 수요측면

국내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한 해는 6월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돈육소비는 최고 60%나 감소되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유지하여 평년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지며, 새천년을 맞이한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 및 지난 연초부터 시작했던 경기회복 지표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 돈육소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국내 돈육원가의 급증시는 육가공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어 가공두수의

인해 작년수준은 유지되리라 예상되지만 대일 수출여건의 불안(돼지콜레라 문제, 일본의 권장사항이던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과 일본내 한국산 돈육 품질의 불신, 미국과 유럽의 대일돈육 덤핑수출과의 경쟁 등 외부여건은 좋지 않아 많은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상황 변화

지금까지의 돈육수입은 수출을 감안한 전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물량이 좌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작년의 수입량은 당초예상 10만 톤을 훨씬 초과한 15만톤수준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0년 예상은 작년과다한 수입으로 인한 많은 물량이 금년으로 이월되고 수출국들의 돈육소비 증가, 돈가회복에 의한 수입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추가 수입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



고돈가 행진은 지속되어 단기적인 돈가 및 추이는 작년 동기간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1월의 돈가는 지난 12월 돈가보다 소폭 하락한 2,900~3,000원/kg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되나 최근의 고돈가 현상을 감안하면 고품질, 저원가 위주로 수입이 지속될 것이며, 삼겹살 외의 전부위 수입현상은 계속되어 수입량은 작년비 30%정도 감소한 약 10만톤 수준이 예상된다.

상기의 여러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돈육소비는 꾸준히 회복되고, 대일 돈육 수출도 작년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사료생산량 및 사육규모를 고려한 국내산 공급량은 큰 폭의 증가가 없고, 돈육수입의 경우는 국내산을 포함한 많은 돈육이 2000년으로 이월되고 수입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추가 돈육수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작년보다 30%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돈가 행진은 지속되어 단기적인 돈가 및 추이는 작년 동기간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1월의 돈가는 지난 12월 돈가보다 소폭 하락한 2,900~3,000원/kg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양돈

인과 육가공인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의 말과 같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 돈콜레라의 박멸이 실패로 결론지어 진다면 돈육수출의 중단과 동시에 양돈산업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은 '97년 대만구제역, '99년 다이옥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고기를 완전히 외면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사업준폐의 기로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인은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돼지콜레라의 박멸과 실제적인 양돈산업 구조의 재정립으로 생산비 절감을 노력하고, 육가공인은 육질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돈육수요 확대와 냉장육을 위주로 한 돈육수출의 확대를 통해 양돈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양돈**

<표3> 돈육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1~8월 누계	9월	10월	1~10월 누계
수출	1998년	53,869	8,675	8,317	70,861
	1999년	51,558	5,995	8,037	65,590
	전월비	96%	69%	97%	93%
수입	1998년	38,404	5,573	3,403	47,380
	1999년	105,992	16,383	8,881	131,256
	전년비	276%	294%	261%	277%

